

## “온통 선거에만 정신 팔렸다”

지역정치권 호남위기론에는 무기력  
세종시 대책 등 적극 의정활동 나서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광주·전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전에 대거 뛰어들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와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의 표류, 자치단체 감시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방의원들도 임기 마지막까지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면피성 비난 논쟁을 발표하는데 그치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조직 점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단독의 수정 예산안이 2년 연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F1 경기장 예산, CT 연구원 설립 등 지역 현안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지만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민주당 지도부에 대책 마련을 공식 촉구하거나 추경 예산 반영 등의 대안을 거

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민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모 국회의원의 광주시장 출마 선언식에 참석, 지방선거에만 한눈을 팔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의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해외 시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2월 임시국회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고 정부 부처의 예산 검토도 오는 4월경부터 시작되지만,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정부 부처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여권 내부와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기초의원도 일찍 지방선거전에 휩쓸리면서 자치단체 감시 등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임후보 예정자 출마회견에 동참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얼굴 내밀기 등 자신의 선거운동에 '몰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전남의 경우 사실상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오는 2월과 3월 예정된 각 광역·기초의원회의 회기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정가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위기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만 있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임동욱·최권일기자 tuim@kwangju.co.kr



젖먹던 힘까지

12일 오전 전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0학년도 전남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정시 실기시험(100m 달리기)에 응시한 수험생이 결승선을 향해 역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흑산 앞바다 놓아줬던 어린홍어 8개월만에 그 어부가 다시 잡아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닌가? 망망대해에 풀어줬던 홍어가 다시 잡혔으니...”

연구목적으로 지난해 봄에 방류했던 흑산홍어가 8개월 만에 주인에게 돌아왔다. 값을 두 배나 받고 팔 수 있을 정도로 크기도 훌쩍 커 ‘작은 황제’를 안겼다.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 제2영진호 심동열(52) 선장과 대광호 최한동(69) 선장은 지난 2일 전북 번산반도 앞바다에서 주낙을 걸러 올린 홍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들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의 참출어 자원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난해 5월 흑산 앞바다에서 방류한 홍어에 채워준 노란 표식이 달려있어서다.

이들이 방류했다가 다시 잡은 홍어는 모두 3마리. 이들은 방류 당시보다 평균 11.3cm나 자란 폭 68cm로, 가격도 두 배인 마리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크기였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참출어 몸통에 13cm 길이의 노란색 표지표를 부착해 방류해 오고 있다. 참출어의 이동경로와 성육장, 산란장 및 한 달에 얼마나 크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참



최한동 선장(사진 왼쪽)과 심동열 선장.

홍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표지표에는 고유번호와 함께 수산연구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어민들이 방류된 참출어를 다시 잡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900마리를 방류해 잡히는 8일부터 길게는 266일 만에 17마리를 다시 잡았다.

수산과학원은 이번에 잡힌 홍어가 흑산 앞바다에서 총칭도 해역까지 올라갔다 회유(回遊)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한동 선장은 “방류한 홍어가 성장해서 다시 돌아온 것을 보니 올해는 만선(滿船)의 행운이 올 것 같다”고 기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비수도권 단체장들 “세종시가 다 가져간다”

李대통령에 특단의 대책 요청 등 반발 확산  
시민단체 “수정안 철회”...박근혜 반대 재확인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수정안이 발표되자 박광대 광주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도 세종시 수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광대 광주시장은 12일 청와대에 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광주·전남에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역민들은 그동안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관광산업과 클린디젤 자동차부품산업이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전남

도의 녹색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산업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하남시장 부안시장과 정우택 충북지사, 박성호 대전시장, 김법일 대구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 비수도권 단체장들도 “세종시가 모든 것을 가져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정부가 광주·전남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도 “정부는 세종시 수정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과 아권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플러스 알파(+α)라고 원안은 다 빠진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박지원·강은태·이용섭 의원 등도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 ▲지역균형발전추진 법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대기업 땅값 통제 철회 등을 주장했다.

전남도의회·광주북구 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홍행기·최권일기자 redplane@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 양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이문세 붉은노을 '광주'**

꿈같은 사랑의 노래가 다시 시작된다

1월 29일 - 30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2010년을 맞아 첫번째 문화 행사로 '이문세 붉은노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부터 11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한 '붉은노을' 콘서트는 관객의 사랑을 기록하며 6만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 2009년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명품 콘서트입니다.

1996년부터 13년간 계속된 '동행회' 콘서트에 이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붉은노을' 콘서트는 이문세의 히트곡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이문세는 '난 아직 모르잖아요',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들려주며 다양한 이벤트와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1월 29일(금), 30일(토)  
    금요일 8시 / 토요일 7시

• 장 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 주 관 : (주)광명아트

• 공연문의 : 062-223-0521, 1588-0769

• 예 재 지 : 티켓아우, 인터파크, 광주은행 전자집

작은 배려와 실천이  
**'1등광주' '아름다운 광주'**를 만듭니다.

2010년 세계환경도시, 2010년 세계지속가능도시, 세계문화유산 유산 선출권 도시, 2011년 세계환경도시, 2011년 세계문화유산 선출권 도시, 2011년 세계환경도시, 2011년 세계문화유산 선출권 도시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지구촌의 시선에 광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깨끗한 광주, 밝아오는 광주, 친환경 광주로 가꿔 "글로벌 시대, 광주"를 향한 자긍심을 키워갑시다. 내 주변의 작은 배려와 실천이 '1등 광주' '아름다운 광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1. 깨끗한 광주 (청정도시) 2. 밝아오는 광주 (문화도시) 3. 친환경 광주 (녹색도시) 4. 글로벌 시대, 광주 (국제도시) 5. 아름다운 광주 (관광도시) 6. 자긍심을 키워갑시다 (시민의식)

**광주광역시**